

야쿠트의 종교혼합 현상에 대한 고찰: ‘아르치 지에테’(Archie Jiete)의 건립을 중심으로

김 중 순
(계명대학교)

1. 여는 글

17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동시베리아, 즉 바이칼호 동쪽 아시아와 옛날 실 크로드의 북부 지역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거의 없었다. 벨기에 출신 오르텔리우스(Abraham Ortelius, 1527-1598)가 1570년 70장의 지도를 53면으로 엮은 대형지도 《세계의 무대 Theatrum orbis terrarum》를 펴냈을 때 그는 동시베리아 지역에 프레스터 존(Prestre John)의 왕국¹⁾을 그려 넣었고, 마상 창술 시합이 열리는 징기스칸의 화려한 텐트, 독수리가 다스리는 섬, 성서에 등장하는 바다짐승 리바이던을 그려 넣었을 정도다. 책이 발간된 다음 해,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네덜란드 출신 곡물상인 아이작 마사(Isaac Massa: 1586-1643)는 동시베리아 원주민을 접촉한 에벤키 사람들의 경험담을 책으로 엮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담았다.(Baddeley: 9)

-
- 1) 이는 12세기에서 17세기까지 유럽에서 유행했던 전설의 왕국으로, 중세 시대 아프리카, 아시아 등 동방(東方)에 거대하고 풍요로운 기독교 왕국이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사제왕 요한(Presbyter Johannes)의 전설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그는 세 명의 동방 박사 중 한 명의 후손으로 그의 왕국은 청춘의 샘 같은 온갖 신기한 것들로 가득하며 에텐동산에 맞닿아 있었다고 한다.

그들은 원주민 몇 명을 사로잡은 후 귀환 길에 올랐다. 그러나 생포한 원주민들은 공포와 불안, 풍토 차이로 귀환 도중 모두 죽고 말았다 ... 에벤키족은 굉장히 슬퍼했다. 돌아온 그들은 원주민들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으며, 눈이 작고 얼굴이 납작하며 체구가 긴장했다고 말했다.

에벤키(Evenki)족들이 레나강(The Lena) 어귀에서 만난 사람들은 사하(Sakha)족이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사하’라고 했지만, 러시아인들은 에벤키족들이 부르는 대로 그들을 야쿠트(Yakut)족이라 불렀다. ‘말(馬)의 민족’이라는 뜻이었다. 피부가 매끄럽고 하얀 달걀형 얼굴에 머리카락은 새까만 색이었다. 그들은 소나무 숲이 우거진 영구 동토층에 살아가면서 터키어 계통의 언어를 썼고, 순록 대신 말을 길렀으며, 남쪽의 스텝을 낙원으로 여겼다. 그들에게 낙원은 “푸른 비단 같은 골짜기와 양철처럼 빛나는 자작나무가 울창한 곳으로, 풀이 망아지보다 크게 자라고 해가 결코 지지 않으며 빠꾸기도 영원토록 울음을 그치지 않는 곳”²⁾이었다. 1990년 9월 사하-야쿠티아(Sakha-Yakutia)의 자치권이 선포되고,³⁾ 1992년에는 공화국이 탄생했다. 이처럼 두 개의 명칭을 하나로 묶은 이유는, ‘야쿠트’가 일반적으로 북극 동부에 거주하는 터키족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대신 실제 그들 내부인들은 스스로를 ‘사하’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에벤키족과 벌인 전쟁을 노래하는 사하족의 전설(Ksenofontov 1977)에 의하면, 사하족은 원래 중앙아시아에 살던 민족이었다. 그리고 13세기 경 징기스칸에 의해 밀려났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들은 철을 다룰 줄 알고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등 상당한 문명 수준에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다.(Popov 1933) 그러나 그들에게는 음유시인이 기억만으로 낭송하는 1만면에 달하는 서사시 「올롱코」(Olunkho)⁴⁾가 있다. 이 서사시는 그들의 신념체계인 샤머니

2) 낙원에 대한 이런 시적인 묘사는 그들이 아후카이 춤을 출 때 부르는 노래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필자가 2011년 6월에 직접 채록한 것이다.

3) *Sotsialisticheskaja Yakutia*, 1990년 9월 28일자 1면.

4) 이 서사시는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을 민족시인 오윤스키가 “용감한 누르군”(Djuluruyar Nurgun Bootur; Nurgun Bootur the Impetuous)이라는 제목으로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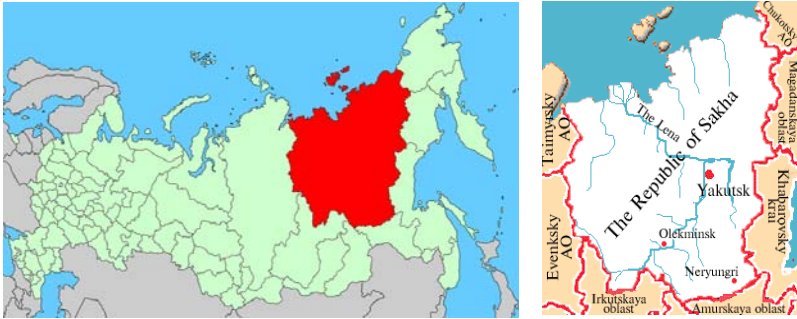


그림 1. 러시아의 사하-야쿠치아 공화국 지도

즘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들의 세계관이 그대로 담겨있기 때문이다. 샤머니즘의 원형을 다시 만나기가 쉽지 않은 오늘날, 올롱코 서사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자료집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20세기 이전에 있었던 인류학자들의 보고(Jochelson 1933)에 의하면 야쿠트인들은 샤머니즘의 고유한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었고, 그것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신념체계이기도 했다. 따라서 샤머니즘의 잊혀진 원형을 다시 찾아나서는 일만큼이나 그 변형과정을 추적하는 일도 중요하다.

야쿠트인들에게 있어서 종교적 환경의 변화를 야기시킨 원인은 무엇보다도 정치적 이데올로기였다. 샤머니즘과 정치 이데올로기와의 만남을 통해 일종의 종교혼합(Syncretism) 형태를 띠고 있는 오늘날 야쿠트의 종교현상은 매우 복잡적이다.⁵⁾ 브레즈네프가 소비에트 연방의 공산당 서기장으로 권좌에

리 한 것이 가장 대표적이다. 이 서사시는 아홉 개의 노래에 3만5천 행(行)으로 되어 있다. 누르군이라고 하는 전사(戰士)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민족을 보호하고 질병으로부터 구해낸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다른 주인공들도 각각 올롱코의 이상을 지켜내는 인물로 그려져 있다. 오늘날 텍스트로 정리되긴 했지만, 그것이 주목을 받는 또 다른 이유는 전문적인 이야기꾼들에 의해 여전히 다양한 버전으로 구연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적인 이야기꾼들이 점점 사라져 마을 단위에서는 보기가 어렵다. 그 대신 도시에서는 여전히 이야기꾼 양성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공연극장 또한 적지 않다. 2005년 유네스코에서 정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5) 종교혼합(Syncretism)은 일반적으로 타종교와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지는 종교적 변질을 의미하지만, 야쿠트의 경우 이데올로기에 의한 변질을 특징으로 한다.

있던 시절, 그러니까 1964년부터 1982년까지만 해도 야쿠트는 정치와는 거리가 먼 곳이었다. 엘리트 공산주의자들 끼리 밀실에 모여 앉아 야쿠트족들은 지역 행정부를, 러시아인은 광산을 나눠가졌다. 당시만 해도 모스크바의 명령 없이는 가로등 하나도 세울 수 없었을 때였으니, 반체제 운동도 없었고 인종 분리주의 운동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민족간의 우애’가 돈독했던 것도 아니었다.(Mowat: 145) 1979년에 야쿠츠크 길거리에서 벌어진 패싸움은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경고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다고 한다. 1986년 여름에는 더 많은 봉기가 있었고, 대학생들은 반정부 시위도 벌였다. 페레스트로이카를 좌절시키려던 KGB가 촉발시킨 것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민족문제와 결부된 사건임에는 틀림없다.(Reid: 2002) 그러나 사람들은 이를 믿고 싶어 하지 않고 애써 부정하는 듯 했다. 그런 정도의 싸움은 어느 도시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불량배들의 패싸움 정도로 치부를 했다. 민족문제에서 기인한 범죄는 아예 통계가 없다고 했다. 민족 간 결혼에 대한 집계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종교문제의 갈등 또한 적지 않았지만, 민족문제와 달리, 겉으로 드러나는 이슈가 아니었다. 특히 소비에트 시절에는 그 긴장관계가 잠시 휴화산이었을 뿐이다. 러시아 정교의 폭력적 선교가 시작되던 17세기 초반까지만 해도 샤머니즘은 민족 종교로서 정체성을 잘 유지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야쿠트 공화국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기는 해도, 실제로는 러시아 정교가 거의 국교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야쿠트 사람들은 대개가 종교 없이, 혹은 종교가 없는 것처럼 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야쿠트에서 실천되고 있는 러시아 정교가 야쿠트의 민족적 성격을 강하게 표방하면서 토착화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야쿠트 민족들에게 별 거부감 없이 수용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야쿠트의 종교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겪었던 격동적인 정치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⁶⁾

오늘날 야쿠트인들이 민족종교로서의 샤머니즘에 대해 새로운 기대를 갖고 있음은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고 있다. 그것은 단순한 사회정치적 변화에

6)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강정원이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어 많은 참고와 자료가 되었다. (2003; 2004; 2009)

따른 것만은 아니다. 종교의 내적 신념체계 또한 동시에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일종의 샤머니즘의 부활 운동이기도 하다. 그 부활이 어디까지 가능할지는 알 수가 없다. 그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샤머니즘의 원형이 애시 당초 따로 존재하는 것인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

2. 샤머니즘, 러시아 정교와 이데올로기를 만나다

야쿠트인들이 신념체계로 삼고 있던 샤머니즘의 사제는 오윤(oiuun)이라 불리는 샤먼이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신성이 주어졌다거나 혹은 나중에 신이 들린(possessed) 사람으로, 주민들의 일상은 물론이고 각종 제사를 책임진다. 그들은 하계(下界)와 상계(上界) 여행을 마음대로 하며 인간과 초월세계 사이의 메신저 역할을 하기도 한다. 풍요의 세계는 ‘아이으 오윤’(aiuu oiuun, 백샤먼)이, 선악의 문제는 ‘하라 오윤’(khara oiuun, 흑샤먼)이 각각 관장한다. 백샤먼이 인간의 영혼과 건강, 물질의 축복을 위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흑샤먼은 인간들에게 병을 들게 하거나 불행을 초래하는 악령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흑샤먼은 악령(아바흐, abaahy), 즉 어떤 악령이 문제의 원인인지를 알아내어 그것을 퇴치시키기 위해 자신의 영혼으로 하여금 초월세계를 여행하게 한다. 샤먼은 ‘靈의 말’을 타고 떠나게 되는데, 이 때 샤먼은 주문을 외우면서 둥구르(dungur)라고 하는 북을 두드린다. 그 북을 울리는 소리가 바로 말이 달리는 말발굽 소리를 형상화한 것이다. 상계에서 오윤은 자애로운 신에게 자비를 구한다면, 하계에서는 그 문제의 악령 아바흐를 쫓아내어 병에 시달리는 환자를 치료하게 된다.(Aleksseev 1975) 흑샤먼은 전통적으로 매년 가을에 아바흐 신에게 바치는 피의 희생제의를 주관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사라지고 없다.(Troshchansky 1903: 130) 흑샤먼과는 반대로 백샤먼의 주된 임무는 천상의 신들에게 기도를 올리고 으호으아흐 축제에서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 피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다.)

7) 실제로 오늘날 열리는 으호으아흐 축제에서도 말고기와 소고기 제물들은 모두 피를 흘리지 않고 도살한 것이 바쳐지고 있다. ‘으호으아흐’의 원래 뜻은 “뿌리

이런 샤먼들의 존재는 17세기 초에 러시아와 만나게 되면서부터 점점 소멸의 과정을 거치기 시작한다. 1628년, 러시아인들은 야쿠트족으로부터 세금을 거두기 시작했고, 몇 년 뒤인 1632년부터는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며 아예 야쿠트족의 영역에다 군사기지를 세우고 식민행정을 펼치기 시작했다.⁸⁾ 결국 수차례의 저항이 있었지만 러시아인들의 군사력을 이겨 낼 수는 없었다. 18세기에 이르자 러시아 정부는 노골적인 식민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러시아인들이 야쿠트족들에게 정교회의 선교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다. 영토의 확장과 신민의 확보를 노리는 제국주의적 발상이었다. 그들은 야쿠트족 민족 종교의 전통을 단절시키기 위해 샤머니즘과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켰으며, 많은 유무형의 유산들을 파괴했다. 샤먼들은 협박과 회유를 당하고 심지어 정교회의 회당을 지키는 일까지 해야 했다.(Nioradze 1925: 60) 일체의 샤먼 행위들이 금지되면서 그들이 신봉하던 샤머니즘의 신념체계는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백샤먼들이 사라지고, 결국 야쿠트족들에게는 주변화된 검은 샤머니즘만이 남게 되었다.⁹⁾ 그러나 계몽적 식민주의로 말미암아 검은 샤머니즘은 미신적이고 비합리적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각인되었고, 비록 형식적이긴 해도, 결과적으로 그들의 종교적 주체는 러시아 정교회가 된 것이다.

이러한 선교정책에 힘을 입은 러시아 정교회는 더욱 적극적으로 성서와 기독교 문헌을 야쿠트어로 번역하기에 이른다. 번역을 맡은 시브체프

다”(spray 혹은 sprinkle)는 뜻에서 유래했다. 이 축제에 관해서는 현재 출판을 기다리고 있는 별도의 논문 「야쿠트족의 민족축제 ‘으호으아흐’에 관한 연구」에서 따로 다룬다.

- 8) 그 군사기지가 바로 오늘날 사하공화국의 수도인 야쿠츠크가 된 것이다.
 9) 전체 사하 공화국에서 침엽수림으로 뒤덮인 타이가(taiga) 지역 어딘가에 오로지 세 명만의 진짜 샤먼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을 만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기다렸지만, 결국 실패했다. 나의 안내와 통역을 맡아 준 Artic State Institute of Culture and Arts의 Vladimir Ilich Alekseev 교수는 이들을 만난 적이 있다며, 사베이(Savei)라는 샤먼은 곳을 하지 않아도 인도와 한국의 샤먼들과 만나고 천상으로 가는 길에 달이나 별에서 쉬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16년 전에는 그가 곳을 통해 심장 이식 수술까지 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샤먼들에 대한 이야기만 도시 전체에 마치 전설처럼 떠돌고 있을 뿐이다.

(Dmitriy K. Sivtsev)¹⁰⁾는 야쿠트 인의 민속신앙을 정교회 의식 속으로 흡수하고자 했으며 심지어는 성경을 번역할 때 야쿠트 인의 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그의 선교활동은 어느 정도 열매를 거두어 현지인 정교회 수사가 배출되었고 야쿠트 사회는 내용적으로도 부분적으로나마 정교회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정교회의 토착화 선교정책이 성공한 셈이다.(Filtov 2000: 113) 그렇다고 해서 샤머니즘에 근거한 그들의 신념체계마저 바꾸었다고는 할 수 없다. 물론 샤머니즘 자체가 한 번도 체계화된 적이 없는 종교이니 이상할 것도 없다.

정교회의 이러한 선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언어를 새로이 공인받게 된 야쿠트인들은 이를 민족적 자각의 계기로 삼았다. 그러나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세계 최초의 공산주의 국가로 수립된 소비에트 연방은 샤머니즘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에 대한 박해를 시작했다. 혁명으로 말미암아 전제왕권이 무너지자 정교회도 기댈 곳이 없었다. 공산주의 정부는 정교회에 대해서도 적대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했다. 주로 성직자들과 수도자들의 설교 엄금, 교회 파괴, 교회 재산 몰수, 그리고 이전 제정 러시아 시절 교회가 누리던 모든 특권도 박탈당했다. 학교에서도 정교회 교육은 금지 당했다. 소비에트 연방 정부와의 원만한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러시아 정교회는 제2차 세계 대전 때 소비에트 연방군을 열렬히 지원하였다. 이러한 교회의 애국심을 높이 산 스탈린에 의해 외형적인 박해는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샤머니즘에 대한 박해는 매우 가혹했다. 샤먼으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을 받거나 정신병원에 수용되었다. 샤먼과 관련된 모든 용품들은 박물관으로 들어가거나 불태워졌으며, 누구든 개인적으로 그런 무구(巫具)를 소지할 경우에는 시민권을 박탈하기도 했다.(Balzer 1993)

1992년, 드디어 자치권을 획득한 야쿠트가 민족국가로 거듭나게 된 것은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국제적인 개방의 흐름 덕택이었다. 그러나 그 후폭풍은 훨씬 더 거세었다. 그동안 수면 위로 떠 오르지 않았던 종교의 자유문제가 드디어 공론화가 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 10월의 고르바초프가 양심의

10) 그의 탄생 105주년 기념예배가 지난 2001년 8월 19일 야쿠트의 러시아 정교회에서 열렸다. (MRF 2011)



그림 2. 야쿠츠크 구시가에 자리 잡은 니콜스키 정교회

자유와 종교의 자유법을 의결한 것이 분수령이었다. 공산주의 시절 박해를 받던 종교가 자유를 얻게 된 것이다. 소련 정권이 붕괴된 것과 동시에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인들의 정신적 지주로서 교세를 다시 늘리기 시작했다. 수도 야쿠츠크의 경우 구시가에 자리 잡은 정교회는 자그마하지만 아주 깨끗하게 복원되어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기도할 수 있는 성소로 활용되기도 하고,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가 하면 샤머니즘의 부활 또한 눈여겨 볼만하다. 물론 러시아 혁명 시절부터 소비에트 시절에 이르기까지 정교회나 샤머니즘은 극심한 종교박해를 받았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물론 야쿠트족의 민족역사에서 볼 때 러시아 정교회는 침략자의 편에 서 있었고, 샤머니즘은 피해자의 입장이다. 따라서 샤머니즘의 복구는 곧 그들의 민족 정체성의 회복과 맥을 같이 하며, 러시아 정교회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정교회와 달리 샤머니즘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탄압을 받아서 이미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가 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탄압이 사람들의 기억마저 말살시키지는 못했다. 박탈당한 그들의 전통이 새롭게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앞서

말한 ‘으흐으야흐’ 축제가 다시 열리고 있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축제에서는 비록 형식적이긴 하지만, 사라져버린 샤먼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상에서도 샤머니즘의 전통에 대한 회복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야쿠트 민족공동체에서 인정받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샤머니즘과 러시아 정교회는 서로 대립 극이기도 하지만, 종교적으로 야쿠트인들이 대놓고 사회주의 시절을 비판하는 것은 찾기 어렵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오랜 세월동안 혼합의 과정을 함께 겪어 온 동반자이기도 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 속에서 샤머니즘의 부활을 꾀하는 상징적 결실이 바로 ‘아르치 지이테’의 건립이라고 할 수 있다.

3. ‘정결의 집, 아르치 지이테(Archie Jiete)’의 건립

2002년 가을, 야쿠츠크 시내 한 가운데 ‘아르치 지이테’(Archie Jiete)라는 이름의 멋진 건물이 들어섰다.¹¹⁾ 이를 단순히 샤머니즘의 성전(聖殿)이라고 하기에는 그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이 너무나 복잡하다. ‘아르치’는 ‘정결(淨潔)’의 뜻이고, ‘지이테’는 집이란 뜻이므로 ‘정결의 집’(House of Purification)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 한국의 무속에서 ‘부정(不淨)굿’이 열리는 굿당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듯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종교적 공간이 아니다. 야쿠트 공화국에서 올롱코 서사시 구연자(口演者)로 존경받는 배우 출신의 아파나시 페도로프(Afanasi Fedorov)가 이 건물의 개관을 축하하며 이듬해 여름 *Ilin*이라는 잡지에 기고한 축사를 보면 그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¹²⁾

아르치 지이테는 이제 정말로 특별하고 깨끗한 장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개관한지 아직 1년이 안되었지만, 벌써 우리가 원하던 대로 계절마다 각각 다른 의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식

11) 정확한 위치는 24 Chernyshewsky St., Yakutsk 677000.

12) *Ilin*, No.6(47), 2005.

은 매우 인기가 있어 날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장례식을 여기서 치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이미 논의가 이루어진 바와 같이 우리는 상당 기간 동안 장례식을 치르지 않게 될 겁니다. 그건 아마도 다른 장소에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아르치 지이테’는 오로지 기쁨과 생명을 위한 순수한 공간이지, 죽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죽음은 러시아 정교회의 몫입니다.



그림 3. 정화(淨化)의 집 아르치 지에테

야쿠트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러시아 정교회와 경계선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것은 건축물의 구조에서부터 나타난다. 아르치 지에테는 야쿠트크를 관통해서 흐르는 레나강 독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건축물로, 나무와 유리와 철재로 지어졌다. 마치 커다란 5각형 텐트처럼 생긴 세 개의 지붕은 위쪽이 좁은 원뿔형으로 생겼고, 내부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원뿔형 집을 ‘우라하(Uraha)’라고 한다. 그것을 세 개로 구성한 것은 3이라는 숫자에 신성성을 부여하고 있는 통구스계의 전통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Ifrah 1998: 393) 그들은 세계가 하늘과 땅과 지하 등 3개의 공간으로, 인간의 영혼은 ‘어머니 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예곳’

(Ije-kut), ‘땅의 혼’인 ‘부어르곳’(Buor-kut), ‘공기의 혼’이라고 할 수 있는 ‘살근곳’(salgyn-kut)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세 개의 ‘우라하’는 ‘올롱코’(서사시)의 방, ‘알그스’(algys; 제의)의 방, ‘에이게’(Eige; 생태)의 방으로 세 가지 혼을 상징한다.

우라하	영혼	상징
올롱코(서사시)의 방	이예곳	어머니
알그스(제의)의 방	부어르곳	땅
에이게(생태)의 방	살근곳	공기

그림 4. 우라하의 구조와 상징

‘올롱코’의 방은 민족 서사시에서 반영된 생태적 생활양식이 지금도 유효함을 말하는 것이다. 옛날과 똑같이 가축을 키우고 말의 신 ‘아이요 죠효교이’(Ajyy Jyohyogyoj)의 신성한 힘, 이상과 의지를 주었던 ‘구므스’를 마시며 살아왔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다. ‘알그스’의 방에서는 의례만 행해진다. 세계수로서의 생명나무는 천상, 지상, 지하의 세 가지 세계를 재현하고 생명나무의 가지에는 신성한 영(靈)들이 깃들어있다고 여긴다. 나무의 높이는 12미터이고 위로 뻗은 가지는 빛과 무한함과 천상의 신들을 향하고 있다. 의례는 ‘홀룸탄(holumtan)’이라는 아궁이 옆에서 열린다. 여기는 불을 태우고 신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공수(divine language)를 받는 곳이다. 알그스는 반드시 동쪽을 향해서 한다. 동쪽에서 첫 햇살이 찾아오고, 동쪽에는 언제나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궁이에는 반드시 불을 피운다. 이런 행위들은 모두 그들 민족의 세계관에서, 자연환경의 지각에 근거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에이게’의 방은 그들이 처음부터 생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말한다. 그들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에 대한 숭배로부터 시작되므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소규모의 교육적인 행사가 열린다. 불, 물, 타이가(釜)를 다스리는 신의 상징이 있고, 습지가 내려다보이는 위층의 작은 발코니 방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제의, 가족의 가치, 민족 언어 교육 프로그램 등이 실시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혼례의 장소로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선호를 하는 듯 했다.

야쿠트 력(曆)에 따라 매월 특별한 행사가 열리는데, 예를 들어 3월에는 임신한 암말을 끌고 와 바깥에 있는 세르게라고 하는 말뚝에다 묶어놓는다. 작년에는 두 명이 새색시가 이 의례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고 했다. 6월은 사람들이 겨울 집에서 여름 집으로 이사를 하는 시기인데,¹³⁾ 헌집을 위해서는 장소를 신성하게 지켜달라는 정화의 의례를, 새 집을 위해서는 터주 대감 ‘이치(ichchi)’에게 인사를 드리는 의례가 열린다고 한다. 그 외에도, 일요일이면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노래와 함께 야쿠트의 전통 원무(圓舞)인 오후카이(Ohuikhai) 춤을 추기도 한다. 그것은 노래와 더불어 이루어진다. 집단 원무라는 점도 그러하지만, 매기고 받기로 구성된 노래춤이라는 점이 우리나라의 영·호남 해안지방과 도서지방에 널리 분포된 강강술래와 너무나 닮았다. 몇 시간씩 계속되기도 하는데, 특히 흥미로운 것은 대략 일곱 음절로 이루어진 노래의 리듬이 우리의 귀에 매우 익숙하다는 사실이다. 단어의 첫 박자에 강세가 붙어 전혀 어색하게 들리지 않은 것은 아마도 야쿠트어와 한국어에 터키어 계통의 유사성이 남아 있는 탓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¹⁴⁾

‘아르츠 지에테’는 이처럼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02년까지만 해도 수도 야쿠츠크에는 전통 샤먼들의 종교적 행위를 위한 어떤 공간도 없었다. 실제로 특정 공간에 신앙이나 가치관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과거에 없었던 일이다. 샤머니즘은 소위 고등종교와 달리 특정한 예배처소 혹은 신전이 없다는 게 특징이고, 그것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¹⁵⁾ 그런데, 뜬금없게도 이런 공간이 설립된 것은 1990년대 초부터 계속되었던 야쿠트족의 민족정신과 전통문화 찾기, 자신들만의 신념체계로서 샤머니즘의

13) 야쿠트 인들은 6월부터 8월까지의 여름을 위해 널찍한 초원에다 ‘여름 집’을 마련해 살고, 추운 겨울에는 혹한을 피할 수 있고 난방 연료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겨울 집’으로 이사를 한다.

14) 이것 역시 앞으로 ‘원무 노래 춤’으로서 뿐만 아니라 비교언어학에서도 흥미로운 과제가 될 수 있다. 출판을 기다리고 있는 「야쿠트족의 민족축제 ‘으호으야호’에 관한 연구」에서 따로 다룬다.

15)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굿당으로 꼽히고 있는 인왕산의 국사당도 단순히 굿을 위한 기능적인 보조공간일 뿐이지 상설 신전이나 사원은 아니라는 점에서 비슷하다.

원형 찾기,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 정교와 구분된 자신의 정체성 찾기에 대한 오랜 논쟁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현재 ‘아르치 지에테’의 관장 이바노프나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다 자세히 이해할 수 있다.¹⁶⁾

20여 년 전에 야쿠티아가 자주권을 인정받았을 때 우리는 자그마한 ‘민속 예술의 집’을 경영하고 있었다. 그때 야쿠츠크에 우리 민족의 전통, 세계관, 문화를 구현하는 건물이 왜 없느냐를 생각하게 되었다. 그 때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Ilya Mihailchuk에게 이런 생각을 전했고, 그의 도움으로 2002년 9월에 ‘아르츠 지에테’의 문을 열게 되었다. 물론 개관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하여 언제나 의혹을 품는 법이다. 또 우리의 문화를 어둡고 신비하며, 샤머니즘과 연결되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자신의 문화를 왜곡하고 있음을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오랫동안 우리의 문화를 억압당하는 데 익숙해져 버린 탓이기도 하다. 그러나 샤머니즘은 우리 문화의 일부이다.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있는 것인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다. 샤머니즘이야말로 가장 훌륭하고 진보적인 것이다. 우리 야쿠트 사람들은 옛날부터 우리만의 신념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 신앙 속에서 우리만의 세계관과 전통을 보전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처소조차도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르치 지에테’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실제로 이 건물에 대해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데 대해 이바노프나 관장은 심적 부담이 적지 않아보였다. 통역을 맡았던 블라디미르 교수는 인터뷰 내내 시니컬한 표정을 지었으며, 대화의 상당 부분은 아예 통역을 피하는 느낌마저 받았다. 인터뷰를 마친 후 블라디미르 교수가 내뱉은 말은 이 문제에 관한 야쿠트 내부의 간극이 여전히 크게 벌어져 있음을 짐작케 했다.

“Archie Jiete is just a drama full of lies and deception!”

아르치 지에테는 순전히 민족종교를 상업화시킨 사기극이라고요!”

16) Bochonova Valentina Ivanovna 관장과의 인터뷰는 2011년 6월 24일 아르치 지에테에서 열렸다.

그러나 최근 언론에서 발표된 다음과 같은 기사에서 우리는 야쿠트인들의 아르치 지에테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적어도 전통적인 생활양식의 부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으며, 자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이론이 없어 보인다. 그런 뜻에서 ‘아르츠 지에테’에서는 샤머니즘 의례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목적 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일종의 문화 여가시설로 전통 문화의 전승을 비롯한 문화 행사도 열린다. 훌륭한 저명인사들을 모셔와 청소년들의 교육활동도 벌인다. 음향 효과가 좋아 음악가나 훌륭한 미술가들도 많이 찾아온다. 샤머니즘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도 방문을 한다. 결국 ‘아르츠 지에테’는 일종의 정신문화센터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의 영적인 측면, 전통, 세계관 등을 제시해주는 것이 사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곳은 야쿠트인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개방이 되어 있다. 미리 예약만 하면 집례를 담당하는 ‘알그스츠티’(algyschyt)를 초대할 수도 있다. 그들은 과거의 샤먼을 대신하여 굿을 담당하는 새로운 직업인이다. 아르츠 지에테에서 우리를 맞아 준 마리아(Mariya Nogovicina, 75세)는 현재 그곳에 자기와 같은 알그스츠티가 10명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과거 샤먼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의 여지가 많아 보였다. 그 이유는 매우 복잡적이다.

4. 야쿠트 종교 혼합(Syncretism)의 과정과 양상

20년 전만 해도 야쿠츠크에는 종교적 예배 공간으로 공인된 성전은 하나 밖에 없었다. 물론 러시아 정교회였다. 그러나 지금은 이슬람 모스크, 가톨릭 성당, 그리고 개신교 교회까지 모두 4개가 있다. 구색은 다 갖춘 듯 보이지만, 인구 269,500명의 수도 야쿠츠크¹⁸⁾에서의 종교 활동이 그리 활발하지 못한

17) *Izvestiya*. 2011.08.18. 3년 전 ‘아르츠 지에테’의 개관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타동과 갈등이 생겼던 일은 문명 발전에서 당연한 일이었으며, 결국 문을 열게 된 것은 일반인들이 이런 경험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셈이다.¹⁹⁾ 그러나 야쿠트인들에게 있어서 애시 당초 이처럼 ‘체계화된’ 종교적 구분은 역사적으로 그리 큰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전통적인 민족종교로서의 샤머니즘이 하나의 신념체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비에트 시절의 종교 탄압으로 말미암아 상당부분 훼손되었기는 하지만, 샤머니즘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오늘날은 그 부활운동이 아예 공개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샤머니즘의 부활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아르치 지에테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정교회 측의 반응은 별로 민감하지 않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의 전통적인 생활방식일 뿐 종교는 아니라는 것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그들도 역시 창조주 신에게 간구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므로 정교회의 이념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문화적 전통과 샤머니즘적 종교 행위를 그리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레나강에서 폭풍이 불면 정교 신자인 야쿠트 사람이 강의 신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강에다 보드카 한잔을 붓는데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리고 때를 맞추어 폭풍이 끝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여기에는 모순이 없다. 그들은 위급한 일이 있어 있을 때 샤먼을 찾을 수 없거든 정교회에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공공연히 말을 한다. 그것은 주교가 샤먼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이다.²⁰⁾

18)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2011-04-25 현재. 사하(야쿠티아) 공화국의 총 인구 수는 1백만 명이 채 못 된다. http://www.perepis-2010.ru/results_of_the_census/results-inform.php.

19) Information Center under the President of Sakha Republic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С(Я))에 의하면, 현재 사하공화국 종교 비율은 다음과 같다. <http://www.sakha.gov.ru/main.asp?c=2305>. Orthodoxy: 44.9% / Shamanism: 26.2% / Non-religious: 23.0% / New Religious Movements: 2.4% / Islam: 1.2% / Buddhism: 1.0% / Protestantism: 0.9% / Catholicism: 0.4%.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와 샤머니즘, 그리고 신흥종교의 경계와 구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 통계는 전체 인구 45.54%에 해당하는 야쿠트인과 41.15%에 해당하는 러시아인, 그리고 그 외의 소수민족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타종교에 대한 무관심이라 할 만한 이러한 관용은 종교의 혼합(Syncretism)에 다름 아니다. 정교의 입장에서도 그러하고, 샤머니즘의 입장에서든 마찬가지다. 으아호아호 축제가 어느 정도 국가적 차원에서 야쿠트 민족의 정신적 일치 혹은 자긍심을 고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르츠 지에테의 건립 또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은 아르츠 지에테에서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운영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단순히 변질된 샤머니즘의 한 형태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국가의 이념이 간섭을 하고, 영적인 원리의 재해석과 더불어 심지어 민족의 정신 개조에까지 관여를 한다면, 여기서 말해지는 샤머니즘은 오히려 야쿠트의 특수한 상황에서 빚어지는 신흥종교 현상으로 ‘네오 샤머니즘’ 내지는 ‘뉴에이지 운동’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종교적 신념의 측면과 정치적 이념의 측면이 동시에 해명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1) 종교적 신념의 재구성

샤머니즘에 기초를 하고 있는 야쿠트인들의 신념체계는 기본적으로 범재신론(汎在神論; panentheism)²¹⁾이다. 그들은 모든 만물에 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믿었고 동물, 나무, 강과 개울, 산과 계곡,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에게서조차도 영의 존재를 느낀다. 그러면서도 그런 내재적 영성을 초월하는 영의 존재를 믿기도 한다. 야쿠트인들의 의식세계 속에는 그들이 신의 자손이라는 믿음이 깊게 뿌리내려 있다. 다시 말하면 최초의 야쿠트 인이었던 사하 사아린 토온(Sakha Saaryn Toion)과 사비 바아이 호툼(Saby Vaai Khotun)이 야쿠트 민족을 만들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이들에게는 한국을 비롯한 투르크계 민족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천신(天神; Aiy), 즉 텡그리(Tengri) 숭배사상도 있다.(Filatov 2000) 이러한 사상은 마치 전통 한국의 하늘신 개념에 기독교의 하나님 신앙이 동일시되었던

20) *Izvestiya*, 2011.08.18

21) 만물이 그대로 신이라는 범신론(pantheism)적 주장과 달리 범재신론(panentheism)은 신의 내재와 초월이라는 양면성을 강조하여 만물과 신이 하나이면서 둘이고 둘이면서 하나라는 역설의 신론이라고 할 수 있다.

것과 마찬가지로 야쿠트에서 19세기 초반 러시아 정교회와의 만남이 있었을 때도 그러했다. 그리고 백사면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정교회 성직자들에게 물려 준 것도 자연스런 과정이었던 것이다.

1980년대 중반에 아파나시예프(Lazar' Afanas'yev), 우칸(Ivan Ukhkhan Nikolayev), 파블로프(Anatoli Pavlov) 등 세 사람이 등장하여 일종의 신흥 종교를 주도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Balzer 2005: 62) 그것은 무엇보다도 야쿠트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와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전통이 말살되는 것에 대한 저항 운동이었다. 그 중에서도 언어학자로서 이 운동의 이념을 확립해 온 이는 아파나시예프였다. 그는 현재 야쿠트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인간과 자연간의 관계를 단절시켜 그들 스스로가 정신적 정체성을 잃어버린 결과라고 했다. 따라서 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야쿠트인의 전통적 생활양식과 세계관, 그리고 전통 신앙에 뿌리를 둔 가치체계를 부활시키는 것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급기야는 '아이이 우오르예케(Aiyy yeurekhe; Teaching of the Spirit)라는 책(Afnas'ev 1993)을 출판하여 수많은 전승 신화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도 창조신(Aiyy 혹은 Tengri)과 같은 유일신 중심의 교리를 정리했다. 그것은 범 터키계가 공유하고 있는 텡그리 신관의 야쿠트 버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새로운 교리에 따르면(Filatov 2000: 116), 세계는 9개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고 각 천공에는 그들만의 신과 영혼이 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9번째 하늘은 창조신인 아이이(Aiyy; Tengri)가 다스린다.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땅에 살고 있다. 땅 위엔 첫 번째 하늘이 펼쳐져 있다. 종종 불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태양의 신이기도 한 아이이 신과 사람 사이에는 9개 층의 하늘이 있다. 생명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슈르'(Syur)가 아이이 신에게서 흘러나와 9개 하늘로 스며들어간다. 슈르는 에너지이며,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이 되게끔 하는 생명의 기운이다. 사람은 세 개의 혼으로 만들어져 있고, 죽음 이후에는 다시 분리된다. 육체를 다스리던 '땅의 혼'은 사라지고 정신을 다스리던 '공기의 혼'만이 생전에 쌓은 선행의 정도에 따라 9개의 하늘 중 한곳으로 가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어머니의 혼'은 아이이 신에게로 돌아간다. 이 '어머니의 혼'은 '쿠트'(kut)라고도 불린다. 이 쿠트가 인간을 이루는 핵심적인

것이다. 쿠트는 생명의 기운인 동시에 신의 형상이다. 인간은 쿠트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한 악령과 나쁜 샤먼이 그것을 훔쳐갈 수도 있다. 야쿠트 인은 지상에서의 삶과 저승에서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자신만의 쿠트를 잃어버리게 될까 봐 평생 두려워하며 산다. 야쿠트인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쿠트를 지키기 위해서이다. 지상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 삶의 모습은 이 쿠트를 어떠한 맘으로 지켜나가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아파나시예프는 이를 위해 아이신의 9가지 계명을 제시했다.

1. 간음하지 말라; 2. 자연을 숭배하라; 3. 자신의 생업을 늘려가라; 4. 살생하지 말라; 5. 자신의 재능을 지녀라; 6. 의로워라; 7. 진리를 배우라;
8. 자신의 쿠트를 지키라; 9. 아이신 신의 계명을 지키라

아파나시예프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렇게 유일신 체계를 세우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동시에 범신론적 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다. 그들은 사실상 신흥종교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었으며, 이 종교가 야쿠트인들의 정신적, 윤리적 수준을 높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스스로를 아이신 신을 섬기는 ‘백샤먼’의 대리자라고 여겼다. 흑샤먼이던 백샤먼이던, 그들은 인간의 육체와 정신에 관여한다는 것이며, 그 만남의 영적 공간을 벨리트(belit)라고 한다. 이는 초능력에서 말하는 바이오필드(biofield)와 비슷한 개념이다.(Filatov 2000) 그러면서 야쿠트 인들은 누구나 어릴 적부터 이러한 초능력에 관한 지식을 자연스럽게 습득한다고 한다. 샤먼은 이런 벨리트에 영향을 주며 그것을 옮기기도 하고 훔치기도 하고, 대부분 선한 동기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악한 목적에 의해 행해질 수도 있다. 이는 흑샤먼의 세계로 백샤먼의 그것과는 달리 영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이지 못하다. 이는 어둡고 원시적인 힘의 세계이다.

아파나시예프를 중심으로 한 이들 그룹은 1993년에 결국 신흥종교 단체 ‘쿠트-슈르’(Kut-Syur)를 정식 발족시키고 등록했다. 형식적으로 이 단체엔 몇 안 되는 지식 인사들이 가입되어 있지만, 그 포교활동은 눈에 띄만한 결과를 얻어내었다. 이 신흥종교 단체와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없다 할지라도 치

병(治病)을 담당하는 민간 치료사들이 적지 않게 등장한 것도 결국은 쿠트-슈르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원로 역사가이면서 민간의학협회를 설립하고 회장으로 있는 블라디미르 콘다코프(Vladimir Kondakov)와 여성 치료사 클라브디아 막시모바(Klavdia Maksimova)가 대표적이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우주-인간-땅’의 삼위일체로 야쿠트가 영적으로 치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원래의 뿌리로 돌아가야 하며, 이 땅과 약초, 음식, 물, 그리고 우리의 이 아름다운 자연이야말로 자신들에게 삶의 생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²²⁾(Balzer 2008: 98)

2) 정치적 이념의 재구성

1920년대 말부터 공식적으로 금지되었던 종교 활동으로 말미암아 샤머니즘도 오랜 암흑기를 견뎌야했다. 그것은 1980년대 후반 미하일 니콜라예프(Mikhail Nikolaev) 사하 공화국 대통령이 자국의 사상 및 정신문화에 기반한 ‘문명화’(kul'tivatsiya)라는 이데올로기를 펼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전략을 펼쳤다. 한편으로는 민족 고유의 전통, 문화, 구비 전승을 부활시켜 야쿠트 인의 자의식을 드높이겠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혁명으로 말미암아 단절되었던 정교회의 선교를 부활시키고자 하는 것이었다. 결국 자민족 고유의 정신문화를 국가 이데올로기의 세속적 내용으로 삼고, 정교회 신앙은 국가 이데올로기의 종교적·형식적 표상으로 삼아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자 했던 것이다.

니콜라예프 대통령이 1996년 야쿠트 정신문화 학술원을 설립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러한 의도를 보다 분명히 읽어낼 수 있다. 이 학술원에는 야쿠트의 지식인, 즉 작가, 화가, 배우, 인문학자 뿐만 아니라 당시 정교회의 주교까지도 회원으로 등록되어있었다. 학술원 개원 연설에서 그는 설립 취지를

22) 이러한 신념체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은, 비록 그 내용이 원시 샤머니즘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샤머니즘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종교활동’이다. 특히 아파나시예프의 초월적 체험은 마치 19세기 조선말의 사회변동과 동학의 등장을 연상케 하여 앞으로 종교심리학과 비교종교학의 보다 심층적 연구가 요청된다.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Nikolayev 1996: 9)

학술원의 전략적 목표는 사하 공화국의 정신문화를 부활 계승하고 그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키며 지적 잠재력을 극대화 하는 것이다.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우리민족의 역사와 전통과 풍습을 존중하는 것이 미래에 살아 가는 힘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하 민족에게는 독특한 문화적 전승이 있다. 민족 영웅 서사시 ‘울롱코’가 바로 그것이다. 유감스럽게도 이것이 많이 연구되지는 못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교육의 자료라 할 수 있는 바르간(vargan; 전통악기), 샤머니즘, 전통의학 등에 다른 나라 학자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것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또 하나 특기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러시아 최북단에 전파된 정교회라고 할 수 있다. 그 먼 곳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었던 일이다. 또한 예배를 드릴 때 야쿠트어로 기도문이 읽혀졌으며, 야쿠트어로 쓰인 최초의 책 또한 정교회 서적이었다. 한마디로 러시아의 동북지역에 정교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 그들이 세계문명을 접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정교였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 또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야쿠트 민족 고유의 문화 전통과 정교회의 합일 가능성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그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학술회원 가운데 정교회를 대표하는 주교는 야쿠트 전통 문화의 종교적 복원을 원시 야만성의 부활이라고 했고, 그것이 허락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야쿠트인들을 정교회로 개종시키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일뿐이라는 주장을 내놓았다. 야쿠트어 성경을 재출판하는 일도, 예배를 야쿠트 언어로 집전하는 일도 결국은 그런 목적이요, 그런 방식의 정교의 포교활동이야말로 야쿠트 민족이나 국가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다. 샤머니즘에 대한 정교회의 비판이 때로는 우호적이고 때로는 적대적이어서, 과연 그들이 이해하는 전통문화와 신념체계에 대한 경계가 어디쯤인지 짐작하기 어렵다. 주교를 제외한 나머지 19명의 학술원 회원들의 정교회에 대한 태도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정교를 전파하는 것은 교회의 의무이고, 자신들은 화가로서, 작가로서, 혹은 배우로서

전통문화에 중사할 뿐이라고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대통령이 제시한 친정교회에 대한 우호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었던 것이다.(Omollon 1999)

학술원의 이러한 태도와는 달리, 쿠트-슈르의 목표는 좀 더 분명했다. 정부가 지향하는 전통문화 부활 운동을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개편하여 단순한 ‘문화적’ 성격에서 ‘종교적’ 인 것으로 전환시키는 것이었다. 그 결과 중등학교에서는 전통문화 수업 프로그램이 더욱 활발해졌고, 어떤 학교에는 아예 아이이 신상을 세우기도 했다. 대학에서는 구비문학 수업을 강화하여 신화의 재해석에 힘을 쏟았으며, 전통 신을 위한 제례와 서사시의 암송을 훈련시켜 축제 전문가를 양성해내기도 했다. 그것은 쿠트-슈르 집단이 1990년대 초반부터 야쿠츠크 시에 ‘아이이 신’을 숭배하기 위한 성전을 세우고자 했던 것보다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정부는 1999년 야쿠츠크 시 외곽의 ‘뜨리 베레지(Tri Berezi; Yus Hatyng)’라는 곳에 민족 문화 센터 ‘이이스사흐(Yyssakh)’를 건립함으로써 학술원의 손을 들어주었다.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2년 아르치 지에테가 설립될 때까지, 이곳에서는 정부의 의도대로 매년 오흐으아흐 축제가 열리는 등 민족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되어 왔다.

5. 닫는 글

쿠트-슈르 집단은 다른 민족들이 이미 잃어버린 원형적이고 때 묻지 않은 진리를 야쿠트인만은 간직하고 있다는 믿음에 변함이 없었다. 일종의 메시아적 사명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들 지도자 중 한사람인 파블로프(Anatoli Pavlov)는 이렇게 말했다.(Filatov and Shchipkov 1998: 127-8)

20세기는 사회에 대한 인간의 종속을 주창하는 기독교와 막시즘과 같은 혁명적이고도 파괴적인 종교의 세기였다. 이제 이들 종교는 파국을 맞았다. 이들에 이어 인간의 자율적인 자기완성을 도와주는 실존적인 믿음의 세기가 도래했다. 막시즘과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은 타이가에서 실종될 것이

만 아이이 신을 모신 사람은 살아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자면 인간은 언제나 타이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삶과 죽음, 윤리적 기초와 인간성을 보전하는 것에 대해 막스와 그리스도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기독교와 막시즘은 수세기에 걸쳐 인간들을 파괴해왔다. 이제 때 묻지 않은 진리, 전통, 그리고 선한 옛날로 돌아가야 할 때다. 인간은 더 이상 스스로를 사회와 경제의 힘에 의해 움직이는 꼭두각시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인간은 옛날에 그랬듯이 태초의 창조의 근원이었던 물, 불, 공기와 같은 존재로 스스로를 느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자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 민족에게 또는 전 인류에게 가져다주는 것이다.

쿠트-슈르는 부흥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몇몇 시골에서는 정교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거세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민족 신앙에 따른 제례의식과 축제가 늘어나고 아이이 신을 위한 사당들도 생겼다. 반드시 쿠트-슈르의 이름을 내걸지 않더라도 점점 더 이와 비슷한 단체, 클럽, 전통신앙 신학교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1997년 정부는 드디어 이들에 대해 당근을 버리고 채찍을 들기 시작했다. ‘쿠트-슈르’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을 지지하고 있는 스폰서들을 압박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지도자인 아파나시에프는 그가 근무하던 대학의 학장에서 일개 기능직으로 강등시키고 말았다.(Filatov 2000: 121)

정부가 쿠트-슈르를 주춤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멈추게 할 수는 없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2002년에 아르치 지에테가 세워졌다. 쿠트-슈르 집단은 처음에 이 빌딩에 젊은이들의 영성 훈련을 위한 방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그것은 지나치게 야쿠트 민족만을 위한 종교 중심이고, 지나치게 야쿠트 사람 중심으로 배타적이며, 지나치게 야쿠트 언어 중심이라는 이유였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야쿠트 문화에 대한 근본주의적 태도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이바노프나 관장의 그럴듯한 설명은 있다.²³⁾ 아르치 지에테는 야쿠트인들이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누릴 수 있는 편

23) 2011년 6월 24일 아르치 지에테의 관장 Bochonova Valentina Ivanovna과 직접 인터뷰를 했다.

안한 공간이며, 아직 정교회의 세례를 받지 않은 이들은 이곳에서 결혼도 할 수 있고, 출생과 호적 등록, 혹은 기념예식 때 야쿠트의 영성(靈性)을 충분히 맛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비(非) 야쿠트인들도 환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야쿠트의 전통에 관해 뭔가 배울 수 있는 곳이기를 바란다고 했다.

건물의 입구에는 “야쿠츠크 시의 지식인들은 사하민족의 영적 성장을 위해 소중한 선물을 제공한 야쿠츠크 시장 미카일쑈(I.F. Mikhailchuk)에게 감사한다.”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 건축물의 방향은 해가 뜨는 동쪽을 향해 있으며,²⁴⁾ 레나강의 습지를 바라보고 있다. 그 습지는 겨울에 강이 얼었다가 여름이 되어 얼음이 녹고 물이 넘쳐 생겨난 곳이다. 그리고 길 아래쪽으로는 약간 후미진 곳이기도 하다. 이바노프나 관장은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은 야쿠트 민족 영혼의 본향을 향한 것이며, 특히 생태적 균형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사실은 좀 다르다. 아르치 지에테를 처음부터 이곳에 세울 예정은 아니었다. 쿠트-슈르가 주장했던 장소는 니콜라이 정교회 맞은편이었다. 그리고 처음 나온 설계는 정교회의 첨탑보다 높이가 한 뼘이나 높았다. 뿐만 아니라 아르치 지에테의 명칭도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었다. 쿠트-슈르 집단은 그곳을 ‘정결의 집’ 대신 ‘靈의 집’(House of Spirits)으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아르치 지에테라는 이름은 성전이라기보다 클럽 이름으로 적당하다며 아예 개관식에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Balzer 2005: 64)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옛날처럼 정교회와 일방적으로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교회는 현실적으로 약하고 또한 국민의 넓은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1999년 중반까지만 해도 광활한 야쿠트 공화국에 42개의 정교회 사원과 17명의 성직자가 있었으나, 그 중 야쿠트인은 단 한사람 밖에 없었다. 그동안 교회에 대한 재정지원은 공화국 재원이나 지방 단체의 예산 또는 대기업의 강압적 헌납으로 이루어졌다. 정교회는 사실상 야쿠트의

24) 알타리(제단)의 방향을 모두 동쪽으로 내는 러시아 정교회 건축의 영향일 수도 있겠으나, 해가 뜨는 방향을 신성한 곳으로 여기는 것은 샤머니즘 일반의 경향이기도 하다.

비중 있는 사회 세력이 아니었던 것이다. 변해가는 시대 상황 속에서 정부의 종교 정책도 변했다. 1997년부터 야쿠트 대통령은 정교회로부터 거리를 두는 정책을 표방하고 있다. 연설문에서 정교회를 인용하는 수사는 거의 사라졌고 총 주교와의 회동도 더욱 뜸해지고 있다. 또한 정교회에 대한 재정지원도 감소되었다. 1990년대에 야쿠트에서 심각한 소수 종교의 차별은 없었다. 1999년경에 이르러서는 소수종교의 권익 보호가 정부의 중요한 정책 지표임을 인정하기도 했다.(Filatov 2000: 121-122)

현재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단체의 전통신 숭배자들의 숫자는 500명 선을 넘지 않고 있다. 전통신 숭배는 대부분의 야쿠트 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문화’일 뿐이며 또한 정부도 이에 대하여 세속적인 민족문화의 한 가지라고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물론 정교회를 믿는 야쿠트 인들은 많다. 약 20%의 신생아들이 세례를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정교회가 야쿠트 인의 종교가 된 것은 아니다. 맹목적으로 러시아 정교회를 지지하던 정책은 실패작이었다. 야쿠트 인들 스스로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를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야쿠트 정부는 현존하고 있는 윤리적이고 영적인 종교 집단들의 잠재력을 야쿠트 공화국의 번영을 위한 힘으로 사용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소련 연방이 붕괴된 이후 10년 동안 야쿠트 공화국 안에서 벌어진 종교적 현상은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매우 급박하게 전개되었다. 단순한 혁명 전의 종교를 부활하려는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의 신념체계로서의 민족 정체성 회복 운동이 때로는 급진적인 근본주의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정부의 지지를 받던 기존의 정교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제동을 걸었는지도 보았다. 더 나아가서는 이 두 가지 다른 견해가 극단으로 치닫는 대신 어떻게 종교적 다원주의를 인정하게 되는지도 살폈다. 여기에는 물론 정권이 종교 상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는 시도에서 이젠 그 자율성을 인정하고 정권이 간섭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까지 포함된다.

아르치 지에테의 건립은 야쿠트의 종교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해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샤머니즘의 부활의 신호로서

그러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체계’(system)와는 거리가 멀었던 샤머니즘의 부활을 위해서는 새로운 의미의 ‘체계’에 기대지 않을 수 없는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그 체계는 정치적 이념이기도 하고, 과학과 이성주의가 요구하는 합리성이기도 하며, 수 백 년 동안 간접받아왔던 타종교, 즉 러시아 정교와의 우호적 관계 정립이기도 할 것이다. 결국 아르치 지에테는 다원주의를 표방한, 정치적 이데올로기까지 포함한 종교 혼합 현상의 결과물이며, 동시에 샤머니즘의 부활을 위한 신흥종교 운동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쟁점들은 앞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로 남긴다.

❖ 참 고 문 헌

- 강정원, 「야쿠트 무복과 샤머니즘, 러시아 식민지배」, 『러시아연구』 제13권 제1호. 329-353. 2003.
- _____, 「사하인의 민족정체성과 러시아 민족정책」, 『비교문화연구』 제10집 1호. 5-32. 2004.
- _____, 「체제 전환과 러시아 사하-야쿠치아의 백 샤머니즘」, 『비교문화연구』 제15집 2호. 5-34. 2009.
- ALEKSEEV, Nikolai, *Traditsionnye Religioznye Verovanie Yakutov v XIX-nachale XX v* [Traditional Religious Belief of the Yakut from the 19th to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1975.
- AFANAS'EV, Lazar A., *[Teris] Aiyy yeurekhe [Teachings of the Spirit]*. Yakutsk, Ministry of Culture. 1993.
- BADDELEY, John F., *Russia, Mongolia, China*. London: Macmillan and Company, 1919. Reprinted Mansfield Centre, Conn.: Martino Pub. 2006.
- BALZER, Marjorie, “Dilemmas of the spirit: religion and atheism in the Yakut-Sakha Republic”, Sabrina P. Ramet ed. *Religious policy in the Soviet Union*, Cambridge. 1993.

- _____, “Whose Steeple is Higher? Religious Competition in Siberia”, *Religion, State and Society* 33, no. 1: 57 – 69. 2005.
- _____, “Beyond Belief? Social, Political, and Shamanic Power”, in *Siberia Social Analysis*, Vol. 52, Issue 1, Spring. 2008.
- FILATOV, Sergei, “Yakutia(Sakha) faces a religious choice: Shamanism or Christianity”, in *Religion, State & Society*, Vol. 28, No.1. 2000.
- FILATOV S. and SHCHIPKOV A., “Yakutiya: obreteniye kuta”, *Druzhba narodov*, no.2. 1998.
- IFRAH, Georges, *The Universal History of Numbers: From Prehistory to the Invention of the Computer*, David Bellos, London, The Harvill Press. 1998.
- JOCHELSON, Waldemar, “The Yakut” *Anthropological papers of the AMNH*, v. 33, pt. 2, New York: American Museum of Natural History 1933.
- KSENOFONTOV G.V. *Elleyada*, Nauka. 1997.
- MOWAT, Farley. *Sibir: My Discovery of Siberia*. McClelland & Stewart. 1990.
- NIKOLAYEV, M. “Dukhovnost’ - krayeugol’ny kamen’ v fundamente novoi Yakutii”, *Vestnik Akademii dukhovnosti respubliki Sakha (Yakutii)*, no. 1. 1996.
- NIORADZE, Georg, *Der Schamanismus bei den sibirischen Voelker*, Strecker und Schroder. 1925.
- OMOLLON, S., “Korneyava kul'tura I shamanizm.” *NG - Religiya*, 7 April. 1999.
- POPOV, A. “Consecration ritual for a blacksmith novice among the Yaku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46(July-Sept.). 1933.
- REID, Anna, *The Shaman’s Coat*. Walker & Company. 2002.
- TROSHCHANSKY, V.F. *Evolyutsiya chernoi very (shamanstvo) u Yakutov Kazan’*, Uchenyye Zapiski Kazanskogo Universiteta. 1903.

Federal State Statistics Service.

http://www.perepis-2010.ru/results_of_the_census/results-inform.php.

Ilin, No.6(47). 2005.

Information Center under the President of Sakha Republic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ри Президенте РС(Я)).

<http://www.sakha.gov.ru/main.asp?c=2305>.

Izvestiya, 08.18. 2011

Musings from the Fourth Rome: A Source for Orthodox Christian News and Events.

08.20. 2011.

Sotsialisticheskaja Yakutia, 09.28. 1990.

❖ ABSTRACT

Religious Syncretism in Yakutia:
A Case of the Building 'Archie Jiete'

Tschung-Sun Kim

In the Sakha(Yakutia) Republic, culture and politics continue to be intertwined. Shamanism recently has come out of hiding after Soviet repression, and into fashion. Images of the shaman are changing in villages, where traditional healers have maintained their practices in difficult conditions, and in cities, where a resurgence of spirit belief and healing has led to the revitalization of their nationalism. Shamans and folk healers manipulate their own images, and in turn are changed by the upheavals of politicized cultural revitalization. In this complex and interactive context, folklore about traditional shamans has become especially rich and accessible. I argue here that religion has become an idiom through which competing definitions of homeland and national pride are being shaped. Until September 2002, Yakutsk had never had a 'temple' devoted to the practice of traditional shamanic beliefs. Indeed the whole concept that a building 'Archie Jiete' could contain or represent the beliefs, values and rituals of the Sakha people was new, and highly controversial.

Key Words

종교혼합, 아르치 지에테, 사하(야쿠치아), 샤머니즘
Syncretism, Archie Jiete, Sakha(Yakutia), Shamanism, Belief

논문접수일: 2011. 10. 21.

심사완료일: 2011. 12. 05.

게재확정일: 2011. 12. 09.